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8. 23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英, 여성 혐오를 '테러'로 규정하는 방안 검토

- 8.18 언론은 영국 내무부가 극단적인 여성 혐오를 이슬람·극우 극단주의 등과 같은 선상에 두고 테러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, 내년에 새로운 반극단주의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
 - ※ 영국은 이슬람 극단주의 등을 '우려범주'로 지정 후 관리 중으로 극단주의 조짐이 보이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, 해당 대상을 테러 예방 프로그램에 위탁

○ 스페인, '이민자가 소년 살해' 가짜뉴스 확산

- 8.21 언론은 스페인에서 11살 소년을 잔혹하게 살해한 용의자가 이민자 출신이라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가 이슬람 극단주의 등과 관련 없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에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
 - ※ 영국에서도 지난달 말 어린이 3명을 숨기게 한 흥기 난동 용의자가 무슬림 이민자라는 가짜뉴스가 SNS로 퍼지며 전역에서 극우 폭력 시위가 발생

미주

○ 아르헨티나, 유대인 표적 테러 계획한 이슬람 테러단체 조직원 체포

- 8.19 아르헨티나 연방경찰은 멘도사 지역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계획한 조직 일당을 체포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, 언론은 이번 수사와 압수수색을 '살라피스트 브라더스 작전'으로 명명했다고 보도

중동

○ 튀르키예·이라크, 테러 공동 대응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

- 8.15 외신은 튀르키예와 이라크가 처음으로 안보·테러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, 합동 훈련센터 설립 및 대테러 훈련 등을 통해 兩國의 테러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보도

○ **이스라엘, 도심에서 폭탄테러 시도 중 사망**

- 8.19 언론은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에서 50대 남성이 맨 배낭 속 폭발물이 터져 同人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현장을 지나던 민간인 1명이 부상, 이스라엘 정부는 '조기 폭발로 인한 테러로 보고 있다고 보도
- ※ 同 사건은 美 국무장관이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를 촉구하러 이스라엘을 방문한 날 발생했으며,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 사건의 배후를 자처

아 · 태평양

○ **韓 경찰청, 국내테러 상황 대비 첫 '대책본부 훈련'**

- 8.18 언론은 경찰청이 테러 유형별 정부 주관기관* 중 처음으로 '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훈련'을 19일 개최할 예정이며, 관계기관 조치사항 확인·보완을 통해 테러 대비 태세를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보도
- * 국내일반(경찰청)·항공(국토부)·해양(해경청)·군사시설(국방부)·국외테러(외교부)

○ **중국, 공중과 물속을 넘나드는 신개념 드론 개발**

- 8.18 언론은 중국이 물속과 공중을 넘나들며 잠수정과 비행기 역할을 동시해 수행하는 신개념 드론 '네자 시다트'를 최초로 개발하여 시험 운영에 성공했으며, 수색·구조 연구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보도
- ※ '네자 시다트'는 높이 1.5ℓ 음료수를 담은 페트병 크기이며 공중에서 사용하는 프로펠러와 함께 물속에서 운용할 별도 추진 시스템이 존재하고 자율운행도 가능

아프리카

○ **나이지리아, 자국내 활동중인 테러리스트 사살**

- 8.21 언론은 나이지리아軍이 지난 16일 보르노州에서 활동하는 테러범 대상으로 공습 작전을 펼쳐 현장에서 활동중이던 테러단체 주요 지휘관 5명을 포함한 35명 이상을 사살했다고 보도
- ※ 同 사건 이후 나이지리아軍의 전투피해 평가 결과 이번 공습으로 인원뿐만 아니라 차량 선박 및 의심되는 의료시설까지도 파괴한 것으로 확인

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, 이스라엘에 방화풍선 살포

- '20.8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화성 물질을 실은 풍선을 이스라엘로 살포, 400건 이상의 화재를 일으킨 사건
 - ※ 해당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남부 농경지를 태우고 민간인들 다수피해 발발
 - 이스라엘은 방화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로켓·전투기·탱크를 동원, 하마스의 해군 분대 주둔지·지하시설·감시초소 등 군사시설을 공격
 - 또한, 가자지구로 연결되는 상품 통행로를 차단하고 연료 공급을 중단하였으나, 전력난 심화 등으로 민간인 피해가 발생
 - ※ 하마스는 '07년부터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파타 정파를 몰아내고 독자적으로 통치 중
 - 이에, 불안정한 중동정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집트·카타르가 양측에 중재단을 파견해 휴전을 설득, 이스라엘-하마스는 3주만에 임시 휴전에 합의
- ⇒ 우리도 지난 5월부터 北에서 풍선을 보내고 있는 만큼, 하마스 방화 풍선 살포 등 국제적 사례 등을 검토, 국가 안전보호 대책 마련 필요

< 하마스(HAMAS) >

- (결성) 이집트 '무슬림 형제단'의 팔레스타인 지부소속 강경세력들이 1987년 제1차 '인티파다'(對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민중봉기)를 계기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미국('97.10), 영국('01.3), 캐나다('02.11)
- (연계세력)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, 인민저항위원회(PRC)
- (핵심인물) 이스마일 하니예(최고 지도자, 62년생)
- (활동지역) 팔레스타인 가자, 서안지구 및 레바논內 팔레스타인 난민캠프 등
- (활동수법) 이스라엘 軍·민 대상 폭탄테러·총격·로켓공격·납치
- (주요테러)
 - '08.12~'09.1 이스라엘軍과 하마스간 '가자전쟁' 발발, 800여명 사망
 - '19.5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하드(PIJ)와 연계하여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 700여발을 발사(사망 4명, 부상 80여명)

